한양대학교 2027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인문 계열

모 의 논 술 예 시 답 안

제시문 (가)는 근대에 접어들어 수많은 물질적 변화가 따랐지만, 그 변화가 점차 정신적, 철학적 차원으로 옮겨 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면서, '벽'에 대한 관점의 확장 과정을 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벽에 대해 논의할 때 공간을 나누고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는 물리적 측면만 강조해 온 것에 비해, 시야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벽이 막는다는 정신적 차원까지 언급할 만큼 논의의 변화가 컸다. 그 변화가 유리로 외벽을 마감한 '커튼 월'이라는 건축 양식에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간'의 의미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띠게 된다. 제시문 (나)는 고대 이집트의 그림이나 우리나라 민화가 시각 상이 아닌 개념 상에 바탕을 둔 것과 달리 근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는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등장하였다고 설명한다. 두 글은 모두 예술적 방법이나 시각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상대성을 강조한 것에 비해, ㉡은 방법의 전환 혹은 변모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간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개념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상대성 혹은 방법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 모색은 제시문 (다)의 ㉢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에는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축제 행사 때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망신을 당한 주인공 '엇박자 D'가 등장한다. 그는 합창단 활동에 열성적이었지만 그가 부른 노래는 합창단의 축제 공연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만난 친구들은 새로운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음악 소리를 듣는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고,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부른 노래는 20년 전 합창단이 불렀던 바로 그 곡이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모여 합창을 이루고 있었다. 여전히 음치였지만 그 노래는 아름다웠다. 마치 화음 같았다. 오랜 시간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의 친구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음치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그들은 입을 벙긋거렸고, 그것이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함으로써, 그들은 오히려 그에게 노래를 헌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의 ㉢은 엇박자 D라는 친구에 대한 것이고, 음악에 대한 것이고, 젊은 날의 추억을 향한 것이었다. 서툴지만 저마다의 속도와 개성을 지닌 소외된 존재들, 즉 엇박자들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의 아름다움과 연대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예술의 우수성을 음치 여부와 같이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봄으로써 예술에 대한 시각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진정한 예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모든 예술은 탁월한 수준과 창의성을 요구하고, 실제로 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감상과 감동의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수용 혹은 향유하는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감동이 있는가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의 음치들이 보여 준 오랜 화음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개념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